

중기업 12번째 증시 퇴출 ... 고개 드는 차이나포비아

(중국공포증)

차이나그레이트 정리매매 시작
상장 예비심사 중국기업 '전무'
거래소, 중기업 상장기준 강화 영향

차이나그레이트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에 돌입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가 퇴출되는 중국 기업이 12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차이나 포비아' (중국 공포증)가 확대될 것이라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기업의 국내 기업공개(IPO)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14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코스닥 상장사 차이나그레이트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를 시작했다. 지난 2009년 5월 공모가 1700원에 상장한 차이나그레이트는 14일 종가 기준 53원에 거래 중이다.

차이나그레이트는 2019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정 제출 기한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아 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즉시 상장폐지를 진행한다고 공시했다. 완리에 이어 12번째 퇴출 중국 기업이 될 예정이다.

또 다른 중국기업인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역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다. 현재 개선기간 6개월을 부여받고,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개선기간 종료일인 오는 8월 5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중국기업〉

회사명	시장	상장일	상장폐지일(예정)	상장폐지사유
3노드디지털그룹유한공사	코스닥	2007.8.17	2013.6.5	상장폐지신청
화풍방직	유가	2007.11.26	2015.11.5	시가총액 미달
코웰이홀딩스유한공사	코스닥	2008.1.29	2011.11.26	상장폐지신청
연합과기	유가	2008.12.4	2012.9.14	감사의견 거절
중국식품포장	코스닥	2009.3.27	2013.10.11	상장폐지신청
중국원양자원	유가	2009.5.22	2017.9.27	감사의견 거절
차이나그레이트	코스닥	2009.5.29	2020.5.22	상장폐지 결정
에스앤씨엔진그룹	코스닥	2009.12.4		거래중지
글로벌에스엠	코스닥	2009.12.23		
차이나하오란	코스닥	2010.2.5		
씨케이에이치	코스닥	2010.3.31		
이스트아시아홀딩스	코스닥	2010.4.23		거래중지
웨이포트	코스닥	2010.7.23	2017.7.25	상장폐지 신청
성용광전자상당 부분	코스닥	2010.9.15	2012.9.26	감사의견거절
중국고섬	유가	2011.1.25	2013.10.4	감사의견 거절
완리	코스닥	2011.6.13	2018.5.23	감사의견거절
크리스탈신소재	코스닥	2016.1.28		
로스웰인터내셔널유한회사	코스닥	2016.6.30		
형성그룹	코스닥	2016.8.18		
골든센츄리	코스닥	2016.10.19		
GRT	코스닥	2016.10.25		
오가닉티코스메틱	코스닥	2016.11.4		
컬러레이홀딩스	코스닥	2017.8.10		
원입푸드	코스닥	2018.11.30		

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된다.

아울러 경기도에 위치한 코스닥 상장

사이지만 사실상 중국 게임업체인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 역시 상장폐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소가 지난 13일 스카이문스테크놀로지를 상장 적격성 실

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개선안을 제출하거나 상장폐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시장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잇따라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시선이 좁아졌다. 실제 국내 증시에는 지난 2018년 '원입푸드' 이후 중국기업 IPO는 딱 끊겼다. 현재 상장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중국 기업도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내 증권사와 중국기업 간의 거래가 끊어진 데다 투자은행(IB) 부서에서도 중국 기업 IPO 업무가 사실상 멈춘 상태다.

한 증권사 IB 관계자는 "과거에는 중국기업 IPO를 유치하는 것이 성과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면서 "중국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거래소도 중국기업의 IPO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국기업의 IPO를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TF 조직도 해체했고, 중국쪽 영업은 거의 하지 않는 상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거래소가 중국기업의 국내 상장 기준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줬다. 고섬, 완리 등 중국기업이 회계부정으로 국내 증시에서 퇴출되자, 회계 기준을 국내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것이다.

지난해 7월 거래소는 유가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상장규정을 모두 개정했다.

중국기업의 역외지주회사가 한국에 설립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해주시기로 한 것. 중국기업을 국내법 수준에서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중국기업들은 통상 조세회피처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중국기업의 소재지가 대부분 홍콩이나 케이맨 제도도 설정되어 있는 이유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국기업의 상장이 사실상 중단된 건 작년 7월에 시행된 제도개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기업이 상장할 때 기존에 사업하는 회사는 중국에 있어도 그 회사를 컨트롤하는 지주회사를 국외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도개선은 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는데 특히 중국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웠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중국기업인 3노드 디지털그룹유한공사(2013년 상장폐지)가 국내 증시에 처음 상장한 이후 총 24개 중국기업이 진출했다. 이 중 11개 기업이 상장폐지됐고, 1개 기업이 상장폐지가 결정된 상태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훨훨 나는 반도체주 계속 갈까... 악재 가능성도 유안타증권 투자타이밍 알려주는 '로이터 티레이더'

코로나가 장기 성장 속도에 불 붙여
하반기 가격 하락, 수요부진 우려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정보기술(IT)주의 고공행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언택트(Untact·비대면) 산업 활성화로 주도주 입지가 더 탄탄해졌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엔 가격 하락과 수요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관'이 동시에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반도체지수의 최근 1개월 수익률은 7.72%를 기록했다. 반도체 테마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KODEX 반도체 ETF는 삼성전자가 보유 종목에 없음에도 11.70% 올랐다. TIGER 반도체 ETF도 11.45% 상승했다. 모두 같은 기간 코스피 상승률(6.28%)을 크게 웃도는 성과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언택트 확산에 속도가 붙으며 반도체 산업의 장기 성



/픽사베이

장 속도도 빨라졌다는 평가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반도체와 IT산업이 추가적인 동력도 얻을 수 있게 됐다"며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염병으로 촉발된 언택트가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 가능성을 키웠다는 설명이다.

대부분 반도체 업체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것도 호재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1분기 글로벌 반도체 시장도 전년보다 7% 성장

했다. 이나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상위 업종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와 IT하드웨어, 반도체 업종에 몰려 있었다"며 "이들 업종은 중장기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하반기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둔화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반기 반도체 가격은 서버 특수와 공급 불확실성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부품 사업장의 생산 차질 가능성 등 여러 악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진정세와 함께 1분기에 호재로 작용했던 언택트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최영산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D램 가격 상승의 강도가 올해 3분기부터는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낸드의 고점가격도 4분기부터 하락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종목 포착, 분석 기능 하나로 융합

유안타증권은 14일 미국주식 투자자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Refinitiv·옛 톰슨로이터)와 함께 유망종목 선정과 투자타이밍 포착을 손쉽게 도와주는 미국주식 전용 자동 종목검색서비스 '로이터 티레이더(tRad ar)'를 출시했다.

'로이터 tRad ar'는 '종목 포착'과 '종목 분석' 기능을 하나로 융합시켜 지금 살 만한 유망 미국주식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매수해도 되는 종목인가?'라는 밸류에이션과 '어느 시점에 투자해야 할까?'라는 투자타이밍 두 가지 고려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하나의 화면과 단순한 숫자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또 레피니티브가 제공하는 스톡레포트(Stock Report+)의 퀀트 스코어에 유안타증권 '티레이더(tRad ar)'의 자체 알고리즘(특허번호 10-1599576)이 제공하는 핫빗·안개 구간 신호와 차트 신호 강도 등 매매타이밍 신호를 결합해 하나의 화면에 담았다.

'로이터 tRad ar'는 HTS '티레이더'나 MTS '티레이더M'의 해외주식 메뉴에서 이용 가능하다. /손엄지 기자

감사위, 내달 9일 첫 '정기 포럼' 개최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은 오는 6월 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0 제1회 정기 포럼'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위원회포럼은 지난 2018년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이 뜻을 모아 기업의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돕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려대학교 정석우 교수가 전·당기감사인간 의견불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와 관련하여 해당 사유를 분석하고 해법을 모색해보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심정훈 삼정KPMG 상무는 '감사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가이드라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8년 발간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를 회계제도 개혁 세부 내용과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해 업데이트 한 것이다.

/손엄지 기자

키움증권, 주가연계증권 6종 출시

키움증권은 다양한 기초자산과 구조의 ELS(주가연계증권) 6종을 출시해 청약접수를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청약마감은 15일 오후 1시까지다.

판매상품은 만기 1~3년, 낙인배리어 45%~55%인 스태다운 조기상환형 ELS 5종 및 최대손실이 -10%까지로 제한되는 부스터를 조기상환형 1종 등 총 6종이다.

우선 키움 '뉴글로벌100조 제5회 ELS'는 만기 1년에 3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상품으로 예상수익률은 세전 연 27%이다.

'뉴글로벌100조 ELS'의 경우 기초자산은 모두 시가총액 100조원 이상의 대형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주 상품의 기초자산은 테슬라 보통주와 스타벅스 보통주 2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기초자산의 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3개월, 6개월), 85%(9개월), 75%(12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27%의 수익률로 조기상환된다. /송태화 기자